

SK E&S · 언더독스 감사패

군산시, 사회공헌 프로젝트 '로컬라이즈 군산' 기획 운영

군산시는 군산지역에서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다양한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로컬라이즈 군산'을 기획하고 운영한 SK E&S와 언더독스(주)에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강임준 군산시장은 SK E&S의 구현서 SV추진본부장과 언더독스(주) 조상래 대표에게 감사패를 직접 전달하며, 그간 군산지역의 청년창업자 육성과 도시재생에 힘을 더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지난 2019년부터 영화등을 중심으로 추진된 '로컬라이즈 군산'은 SK 그룹의 에너지회사인 SK E&S가 주력산업 붐과 고용·산업위기에 놓인 군산지역의 회생에 도움이 되고자 창업자를 육성하는 거점공간을 조성한 사업이다.

또 SK E&S는 구도심인 영화등 일대를 전복의 문화·관광지로 발돋움시키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시

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목표로 창업자들의 사업화를 지원해 26개 팀 60명의 사회혁신 청년창업자를 육성했다.

SK E&S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창업자들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 컨설팅을 추진해왔으며 이들이 군산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멘토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군산 특산품인 김을 유통하고 있는 '군산 섬김'은 GS홈쇼핑을 통해 판로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군산 지역 농부들이 생산한 꿀스틱을 유통하고 있는 '썬썬상점'도 쿠광과 네이버스토어 등 주요 소셜커머스에 입점하는 등 창업가들의 성장에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로컬라이즈 군산'은 민간기업 최초로 창업가 육성을 통한 도시재생

사회공헌 사업으로 지난 3년간 새로운 벤처육성 및 도시재생의 모델로 전국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사회적가치를 중시하는 SK 그룹차원의 최태원 회장이 2차례 군산지역을 깜짝 방문하여 청년창업가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며 '로컬라이즈 군산' 프로젝트에 더욱 힘을 실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도전적 청년창업가들의 육성은 우리 지역의 청년들에게 희망과 도전정신을 가져다 준 혁신적인 프로젝트"라며 "앞으로도 군산시와 지속적인 협력과 긴밀한 교류를 통해 청년창업과 청년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나가자"며 지속성있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청년창업 희망기움, 수제작플랫폼 운영, 청년창업 주거지원 등 맞춤형 창업지원을 통해 100여 명의 역량있는 청년창업자를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청년탈(창업지원팀, ☎471-1555)을 통해 창업컨설팅과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군산=한경희 기자



익산시는 산림청이 주관한 학교 숲 활용 및 사후 관리 분야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왕궁초등학교 학교 숲이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친자연적인 학습공간 제공”

익산 왕궁초 학교 숲, 산림청 우수사례 선정

익산시는 산림청이 주관한 '학교 숲 활용 및 사후 관리 분야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왕궁초등학교 학교 숲이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이번 우수사례 공모는 최근 10년간 전국에 조성된 학교 숲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8일 시에 따르면, 왕궁초 학교 숲은 지난 2018년 조성돼 아이들에게 자연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녹색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힐링공간을 제공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왕궁초 학교 숲에 약용수, 유실수, 수생식물, 편백 및 느티나무 등 23종 80여그루를 식재해 아이들

정서함양과 환경 친화적 태도 육성에 기여했다.

왕궁초는 학교 숲을 활용한 자연학습 및 학교생태지도 만들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아이들과 교직원들에게 다양한 자연학습 체험을 제공했다.

또 학교 자체적으로 다양한 꽃식재 및 제조작업 등 적극적인 주변환경 정비를 실시해 학교 숲과 어울려 아름다운 녹색 공간으로 관리함으로써 마을주민의 녹색 힐링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시는 다양한 경관조성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익산=이득훈 기자

하반기 지방재정 6277억원 집행... 일상회복 속도

익산시, 신속집행 목표 85% 설정... 계약보조금 인하 연말까지 실시

익산시가 일상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를 85%로 설정하고 하반기 목표액 6277억원을 집행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익산시는 사업별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선금 지급과 함께 선금지급 가능 금액도 계약금액의 80%로 확대해 시민들에게

신속히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다이로움페이백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소비를 촉진하는 등 주민체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수익계약시 대상금액 한도 확대와 입찰보조금 및 계약보조금 인하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더불어 10억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

해서 부서장 관리 하에 설계·계약·발주·계약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원활한 사업집행이 이뤄지도록 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효율적 재정운용이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재정집행과 자금을 적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익산시,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종합계획 이행평가 '우수'

익산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1년 지역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 이행평가에서 우수 등급에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이는 안정적 식량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마련한 식량산업 5개년 발전 로드맵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8일 시에 따르면, '지역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 이행평가'는 식량산업분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이행 실적(성과)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행평가는 당초 계획 대비 2020년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보고서 적정성, 성과목표 달성

도, 연차별 추진성과 등을 평가한다.

시는 2019년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해마다 변화하는 지역여건과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식량분야의 자체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식량산업의 생산·유통·가공 관련 시설투자 수요를 분석함으로써 이행평가에 높은 성과를 보여 이를 인정받은 것이다.

특히 평가위원의 종합의견에 따르면 익산시는 체계적인 농가조직화를 통해 당초 계획보다 계약재배 면적이 18% 증가(8,256ha)했으며, 생산량 대비 RPC 수확기 매입량은 7% 증가(60,220톤)하는 등 수요를 반영한 쌀 생산 및 생산비 절감 노력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쌀 산업에서의 경쟁력과 공동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쌀 산업 전반에 대한 가치가 제고되는 효과가 발생했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익산의 대표브랜드인 '탐마루'는 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능성 쌀 생산 추진으로 판매실적이 계획 대비 11% 증가했으며, 브랜드 우수상 수상 등 식량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식량산업종합계획을 보완·제출해 12월말까지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익산=이득훈 기자

군산시 치매안심센터 이전 개소 운영

군산시는 8일부터 군산시 주민들의 치매관리 및 정신건강 상담기관인 군산시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지원센터를 공단대로 482(나운동)로 이전,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산시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지원센터는 현 위치의 기존 건물(지상 5층, 연면적 1,647㎡)을 2019년 말 매입해 지난 2020년 말부터 1년여에 걸쳐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조성했다.

주요시설은 1~3층에 걸쳐 치매안심센터(상담등록실, 검사실, 사무실, 프로그램실, 강당)가 자리하고, 4층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상담실, 프로그램실 등), 5층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팀)로 이뤄져 있다.

지역사회 치매 예방과 정신질환 예

방 및 지원 관리 등을 통한 건강한 생활 영위를 위해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 인력 이상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 인식개선을 통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제고,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 강화, 중증정신 질환자 발견 및 등록 의뢰, 환자 및 가족 관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군산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치매예방을 위한 선구적인 역할과 누구나 쉽고 편하게 건강정보 공유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이 찾아오는 센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산=남현봉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12월 초 지급 예정

군산시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이하 공익직불제) 직불금을 오는 12월 초 지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까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자 8,979명(소농 1,773, 면적 7,206)에 대한 이행점검 등 사후검증을 완료했으며, 11월까지 지급대상자 등록정보 수정을 마무리해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자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와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며, 자격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소농 자격요건에 모두 충족한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 단위로 120만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별 및 농지별 역진적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지급된다. /군산=고병만기자

한국전기공사협 전북도회 금호로지스 김장 나눔 봉사

군산시는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회장 양판식)와 (주)금호로지스(대표 이지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사회공헌활동 김장나눔 봉사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행사를 통해 김장김치 135박스(1박스 10kg)를 직접 담가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135가구에 전달했다.

전기공사협 유일의 법정단체인 한국전기공사협회는 매년 사랑의 성금 전달 사회복지시설 후원, 반찬나눔 봉사, 수해 복구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양판식 회장은 "협회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매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해오고 있고 올해에도 회원들의 정성스런 뜻을 모아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군산=남현봉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 등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